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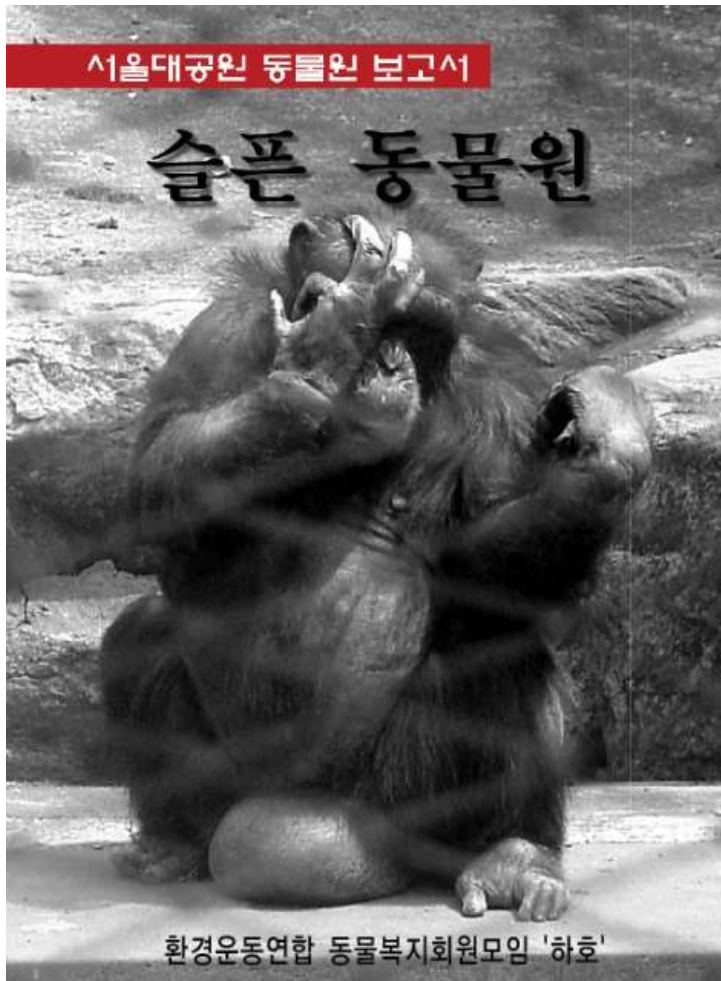
Animal Welfare Issue in Zoo



Eo, Kyung Yeon, DVM, PhD

President of KAZA

The Sad Zoo 1st Edition



- **Title** : The Sad Zoo
- **Publish** : 2001
- **Editor** : **haho**, NGO group
- **Contents** :

목차

I. 동물원과 서울대공원

1. 동물원의 기능
2. 동물원의 역사
3. 우리나라 동물원의 역사와 현황
4. 서울대공원 동물원

II.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사육장

1. 사육장 크기
2. 사육장 환경
 - 1) 바닥 재질
 - 2) 동물을 위한 시설 및 식생
 - 3) 온도
 - 4) 채광
3. 동물의 안전성
4. 관리 현황

III.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동물상태

1. 개체수
2. 몸상태
3. 활동성
4. 이상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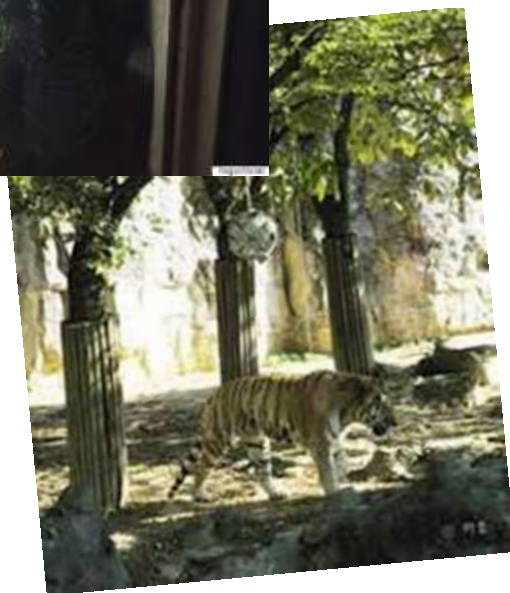
IV.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관람 문화

1. 방문 목적
2. 관람 태도
3. 관람객 안전

The Sad Zoo 2nd Edition



- **Title** : The Sad Zoo 2004
- **Editor** : **hahö**, NGO group
- **Goals** : Conservation and Welfare of Wildlife
- **Target** : Seoul Zoo
- **Volume** : A4 size, 35 pages
- **Contents** : Photos of poor animals







간힌 것도 서러운데 病에... 사고에... ‘슬픈 동물원’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 살던 천연기념물 202호 두루미는 재작년 2월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에 놀라 날아오르다 철망에 부딪혀 간이 파열된 것. 평균 수명 50년인 이 새의 나이 겨우 두 살 때 일어난 비극이었다.

최근 3년간 죽은 동물 6%만 자연노화가 원인

작년 11월 국제 보호종인 바라싱가 사슴의 4개월 된 새끼는 비둘기 포획망이 넘어지자 놀라 날뛰다 철망을 들어받고 죽었다. ‘히말라야의 진객’이라며 작년 봄 들여온 포유동물 렛서팬더 한 쌍 중 네 살짜리 수컷은 올해 8월 간염으로 불구의 객이 됐고 몸값 1322만원도 허망하게 날아갔다. 349종 3000여 마리에 달하는 서울대공원 동물 대부분은 이렇게 제 수명을 못 누리고 질병이나 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두원 서울시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서울대공원에서 입수한 ‘최

근 3년간 폐사동물 사인(死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죽은 516마리의 동물 중 ‘늙어서 죽은’ 동물은 전체의 6%에 불과한 31마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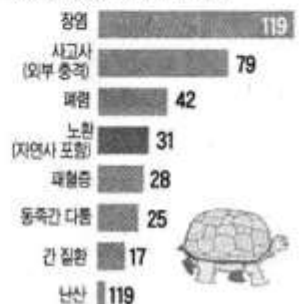
나머지 동물 중엔 폐와 장 관련 질환을 앓다가 죽어간 동물이 유독 많았다. 장염으로 폐사한 동물은 지난 3년간 119마리(23%)에 달했다. 한창 소풍철이던 지난 5월 23-28일 엿새 동안 한데 어울려 사는 큰고니·검은고니·캐나다기러기 등 물새 20마리가 집단 장염 발발로 떼죽음당했다. 먹이를 잘못 먹은 한 마리가 장염을 퍼뜨린 것이다.

폐렴으로 죽은 동물도 42마리나 됐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바람에 뼈가 부러지거나 피를 흘려 죽은 ‘사고사(事故死)’는 15%에 달하는 79마리였다.

‘야생’을 잃은 대신 ‘안락한 삶’을 누리려 할 동물들이 국내 최고의 동물원에서 야생만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부두원 의원은 “콘크리트 벽과 바닥, 철망으로 된 우리에 갇혀 먹고 마시는 동물들의 장과 폐가 말썽하다면 그게

서울대공원 동물들의 사망 원인

(2004년 1월~2006년 10월, 단위:마리)



비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의 최근 2년간 평균 폐사율은 5.8%로 타이완의 타이베이동물원(연평균 6.15%)이나 일본 우에노 동물원(2004년 18.8%)보다 오히려 낮은 편. 문제는 ‘죽음의 질’이다.

디즈니랜드 유치설 이후 ‘우리 개선’市예산 쏘겨

1984년 문을 연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좁고 낡은 우리 탓에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다. 2002년에는

콘크리트·철창 속 동물의 비참한 삶을 다룬 ‘슬픈 동물원’이라는 보고서가 외부에서 발간돼 충격을 줬고 대공원에서는 “2012년까지 우리를 다 개선하고 동물도 20% 줄여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며 ‘선진화 10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첫 삼초차 뜨지 못했다. 읍지 안 읍지 모르는 ‘디즈니랜드’ 때문이다. 동물원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李明博) 전 시장이 ‘과천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뒤 대공원 이전설이 나돌자 서울시가 지원을 아예 끊었다”며 “완전히 뜬오톨치 않으면 (동물원은) 오래 못 간다는 위기 의식이 퍼져 있다”고 털어놓았다.

동물원은 ‘10개년 계획’이 무산되자 작년 내부적으로 다시 ‘서바이벌 플랜’을 짰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000여억원을 들여 기존 우리를 ‘준(準)사파리공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 동물원은 이 계획을 오세훈(吳世勳) 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지만 관심을 잃은 서울시가 다시 지원할지는 불투명하다.

Good or Bad?

Disadvantages

1. Reason for public blame
2. Hard to control the media
3. Animal activist, NGOs
4. Cause of staff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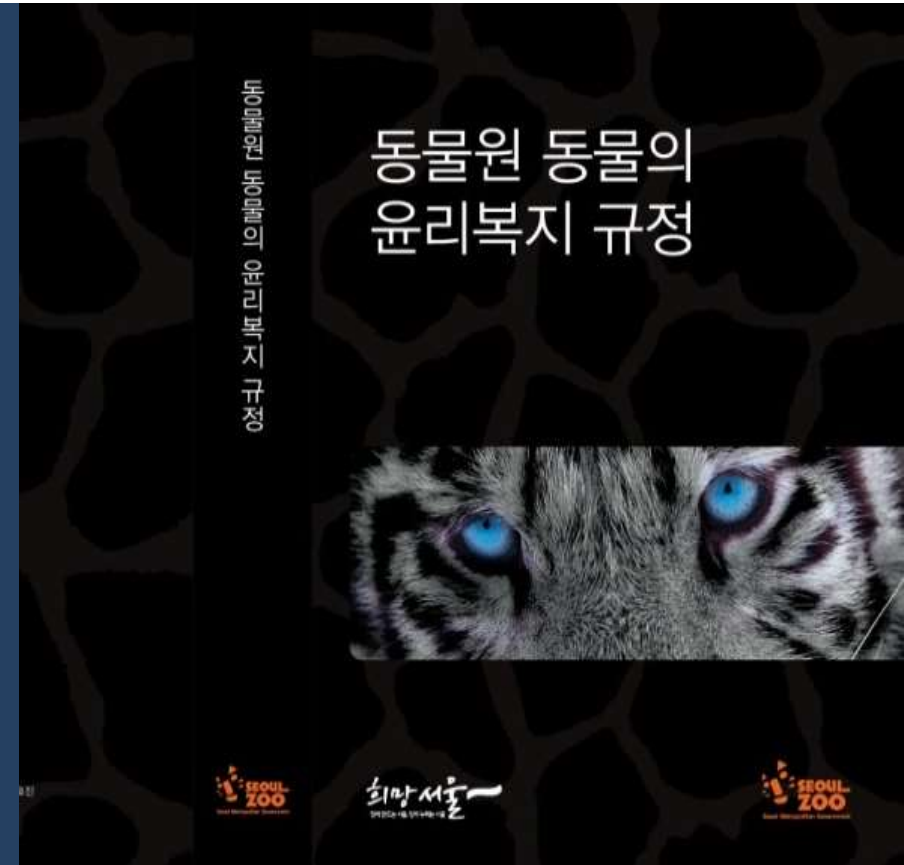
Advantages

1. Budget raising
2. Increase public awareness
3. Chance to improve facilities
4. Higher husbandry standards
5. Welfare status improvement

→ Sometimes, social blame may change zoos

Welfare Assessment, Nutrition Improvement, Species Management

- **Establishing Zoo Ethical Welfare Guideline** : 2016
- **Establishing Animal Species Assessment & Management Plans (Every 5 years)** : Since 2015~
- **Improving Nutrition Management** : Consulting inviting international nutrition experts(2014), Nutrition Assessment (Gorilla, Hippocampus)
- **Running Animal Welfare Assessment Committee**



AZA accreditation

Training and consultation by mentors

- Mentors invited : Tom Meehan (Brookfield zoo), Suzanne Gendron (Ocean park)
 - Mock inspection by mentors
 - Invited lecture: Veterinary care (quarantine), Conservation field



AZA, AZA, Go for Accreditation

"Let's go to AZA!"

서울대공원 AZA~아자~인증 가자!
AZA 인증 추진 프로젝트 일꾼 워크숍

일 시 | 5월 16일-17일

장 소 | 수안보연수원 시청각실(창의관 1층)



Seoul Zoo Got the AZA Accreditation

September 7, 2019



Euthanasia 安樂死

- Welfare assessment tool
- Quality of individual animal's life
- Emotion → Rational consideration → Reality



Copenhagen zoo kills healthy young giraffe

Sunday, Feb. 9, 2014







Bengt Holst on killing a giraffe at Copenhagen Zoo

Difference of Philosophy from Western Mind



LOVE



愛

情



AFFECTION

THANKS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The greatness of a nation and its moral progress can be judged by the way its animals are treated.

国家の偉大さとその道徳的な進歩は、動物の扱い方によって判断することができます。

- Mahatma Ghandi -